

SH05 국어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내 마음 다치게 하면서 지킬 건 아무것도 없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1~12 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 쪽
 - 언어와 매체 17~20 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독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제어하는 상위 인지가 개입하는 역동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능숙한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동안 자신의 이해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해의 실패가 감지될 경우 독서 진행을 멈추고 적절한 교정 전략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목표 설정 - 점검 - 조정'의 순환적 경로를 따른다.

독서의 초기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의 목적과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 경로'를 설정한다. 이는 텍스트의 정보를 어떤 순서와 깊이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독서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 즉 '인지적 부조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상위 인지는 독자의 현재 이해 상태와 목표 상태 간의 격차를 인식하는 ㉠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모니터링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낯선 개념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마주했을 때는 의도적인 주의 집중을 요구한다. 만약 모니터링 결과 이해의 실패가 확인되면, 독자는 기존의 독서 경로를 수정하는 '조정'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조정 단계에서 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텍스트 내부 정보를 재처리하는 '회귀적 전략'이다. 이는 앞선 문단으로 되돌아가 다시 읽거나, 문맥 단서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재추론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둘째는 텍스트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보조적 전략'이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거나 참고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능숙한 독자일수록 회귀적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이것만으로 부조화가 해소되지 않을 때 보조적 전략을 사용하는 위계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자원 활용이 독서의 흐름을 끊고 인지적 부하를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위 인지가 항상 성공적인 독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자신의 이해 실패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해의 착각' 상태에 빠지거나, 실패를 감지했음에도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령,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가 복잡하여 발생한 이해 실패를 단어의 난이도 문제로 오인하여 사전을 찾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인 경로 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상위 인지의 모니터링 정확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최적의 전략을 ㉡ 매칭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상위 인지가 개인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정보가 위계적으로 잘 조직된 텍스트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이해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정보가 파편화된 텍스트에서는 이해의 착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독서 교육이 단순히 전략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전략 선택의 근거로 삼는 훈련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위 인지는 독서 진행 중에 발생하는 이해의 실패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
- ② 독서 경로의 설정은 독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이해 실패가 발생하면 수정될 수 있다.
- ③ 이해의 착각은 독자가 이해 실패를 감지했으나 적절한 전략을 찾지 못해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④ 능숙한 독자는 인지적 부하를 고려하여 외부 자원 활용보다 텍스트 내부 정보의 재처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 ⑤ 정보가 파편화된 텍스트를 읽을 때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텍스트를 읽을 때보다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의도적인 주의 집중이 없으므로 독서 경로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을 통해 목표 상태와 현재 이해 상태의 격차가 없음이 확인 되면 독자는 보조적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지속한다.
- ③ ㉡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인지적 부조화를 예방할 수 있다.
- ④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정확하게 작동하더라도 이해의 착각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을 통해 인지적 부조화가 감지되었더라도 ㉡ 과정에서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비효율적인 경로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은 구조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조직된 '경제 위기의 원인'에 관한 글을 읽고 있다.

(가) 1문단을 읽던 중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의 뜻을 몰라 이해가 안 되었다. 학생은 즉시 스마트폰을 켜서 용어의 정의를 검색한 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다.

(나) 2문단에서 환율과 수출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다. 학생은 앞 문단에 제시된 환율의 개념을 다시 읽어 보았으나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자, 자신이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던 '수요-공급 법칙'을 떠올려 내용을 연결해 보았다.

(다) 3문단을 다 읽고 나서, 결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꼈으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글을 끝까지 다 읽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글쓴이의 주장을 정반대로 이해했음이 드러났다.

- ① (가)에서 학생은 이해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였으나, 능숙한 독자가 선호하는 위계적인 전략 패턴을 따르지 않는군.
- ② (나)에서 학생은 회귀적 전략을 먼저 사용한 후,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조적 전략을 활용하여 경로를 조정하였군.
- ③ (나)와 달리 (가)에서 학생이 외부 자원을 바로 활용한 것은 독서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식이므로 인지적 부하가 높아질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학생이 글을 끝까지 읽은 것은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하여 이해의 실패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군.
- ⑤ (다)의 사례는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이 아닌 독자의 상위 인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이해 수준을 오판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세기 근대 역사학을 정초한 랑케는 역사 서술에서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료에 대한 엄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 “그것이 본래 어땠는가”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것을 주창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태도는 역사를 철학적 사변이나 정치적 도구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유행하던 계몽주의 사관은 인류 역사가 이성의 실현을 향해 단선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으나, 랑케는 이를 거부했다. 그에게 있어 모든 시대는 다음 시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랑케는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그 자체로 신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며, 모든 시대는 '신에 직결되어' 있는 고유한 생명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인 사건들의 집합이므로 자연과학과 같은 보편적 법칙을 통해 일반화될 수 없다. 그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법칙을 통해 역사를 도식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 거부하며, 오직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개성을 서술하는 것만이 역사가의 책무라고 보았다. 이때 역사가

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한 사실의 수집을 넘어, 사료 배후에 있는 역사적 생명력을 포착해 내는 '직관적 통찰'이었다. 즉, 랑케에게 역사적 진리란 논리적 분석보다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미적 직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랑케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가를 단순한 사실의 수집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료는 과거의 실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고 기록된 불완전한 파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를 선정하고 배열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별 사건의 기술에만 치중할 경우, 사건들 사이의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역사의 거시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가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 '왜'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역사학의 본질적 요청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

20세기 중반 분석철학계에서는 역사적 설명의 논리적 구조를 해명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험펠의 '포괄 법칙 모델'이 있다. 험펠은 역사학이 과학적 설명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며, 사건의 설명은 그 사건이 일반 법칙 아래 포섭됨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설명 방식은 ㉡ 연역-법칙적 설명이다. 이 모델에서 피설명항인 사건(E)은 선행 조건들인 초기 조건(C)과 보편적 일반 법칙(L)으로 구성된 설명항으로부터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 즉, “모든 F는 G이다”라는 법칙(L)과 “이것은 F이다”라는 조건(C)이 참이라면,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이것은 G이다”라는 결론(E)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현상에서 예외 없는 보편 법칙을 발견하기란 극히 어렵다. 이에 대해 험펠은 법칙의 요건을 완화하여 ㉢ 귀납-통계적 설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F인 경우 높은 확률로 G이다”라는 통계적 법칙에 근거하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설명항과 피설명항의 관계는 논리적 필연성이 아닌 개연적 지지에 그치게 된다는 난점이 남는다. 이에 대해 험펠은 대부분의 역사적 설명이 법칙을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암묵적으로 법칙을 전제하고 있는 '설명 스케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비어 있는 법칙의 자리를 채워 넣으면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험펠의 모델이 인간의 행위를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여 행위의 고유한 성격을 간과한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다. 드레이는 역사적 사건의 핵심은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그가 달성하려는 목표 사이의 '계산'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행위자 A는 상황 C에 처해 있고, 목표 G를 달성하고자 한다. 상황 C에서 G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은 행위 E이다. 따라서 A는 E를 행했다.”라는 '실천적 추론'의 형식을 띤다. 이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행위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드레이는 법칙 없이도 행위의 이유를 밝힘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그의 이론은 행위자가 비합리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방법론을 소개한 뒤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나)는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상반된 두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 ② (가)는 역사학의 독자성을 옹호하는 특정한 관점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고 있고, (나)는 역사적 설명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사료 비판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고, (나)는 과학적 방법론을 역사학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가)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나)는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 법칙이 갖는 효용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학자의 역사관을 소개하며 그것이 지닌 형이상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해당 역사관이 현대 역사학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랑케는 신의 의지가 발현된 역사적 개별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분석보다는 역사가의 직관적 통찰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②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편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개별 사건의 고유성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③ 험펠은 역사적 설명이 불완전한 설명 스케치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비어 있는 초기 조건의 자리를 채워 넣으면 과학적 설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드레이는 법칙 없이 행위의 이유를 밝히는 합리적 설명을 통해, 행위자가 비합리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한 역사적 사건까지도 온전히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험펠과 드레이는 모두 피설명항인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일반 법칙을 행위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목표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6.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보편적 일반 법칙을 전제하므로,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으로는 온전한 설명항을 구성하기 어렵다.
- ② ㉠에서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이 모두 참이라면, 피설명항인 사건의 발생은 논리적으로 확실하다.
- ③ ㉡은 보편 법칙의 엄밀한 요건을 완화하여, 설명항과 피설명항의 관계가 개연적 수준에 그치더라도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
- ④ ㉠과 ㉡은 설명항이 피설명항을 지지하는 논리적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방식 모두 역사학이 과학적 설명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동일한 전제를 공유한다.
- ⑤ ㉠과 ㉡은 모두 피설명항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원인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7. (가)의 '랑케'와 (나)의 '드레이'가 <보기>의 ㉠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사가 P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처형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 루이 16세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 루이 16세가 느꼈을 공포와 체념, 그리고 혁명군의 재판 기록을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 ① 랑케는 P가 ㉠을 서술함에 있어, 사료에 대한 엄밀한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하되 사건의 배후에 있는 생명력을 포착해 내야 한다고 하겠군.
- ② 랑케는 P가 ㉠을 통해 루이 16세 처형 사건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주관적으로 서술하되, 그 과정에서 사건의 특수성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조언하겠군.
- ③ 드레이는 P가 ㉠에 포함된 혁명군의 처형 결정을 설명할 때, 그 행위가 혁명군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수단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겠군.
- ④ 드레이는 P가 ㉠에서 루이 16세가 느꼈을 공포나 체념보다는, 혁명군이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졌던 목표와 상황 판단을 재구성하는 것이 설명의 핵심이라고 보겠군.
- ⑤ 랑케는 P가 ㉠의 개별 사건들이 지닌 일회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서술해야 한다고 볼 것이고, 드레이는 P가 ㉠의 사건 속에 담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겠군.

8.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칼 포퍼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역사철학자 칼 포퍼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예외 없는 보편 법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상황 논리'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설명은 행위자가 처했던 물리적·제도적 조건과 그가 지녔던 목표 및 정보 등을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방식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위자의 선택이 합리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 논리는 합리성의 근거를 개인의 인지 과정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퍼에게 역사적 설명은 문제 상황과 선택의 관계가 제 3자에게도 논리적으로 검토 가능하도록 객관화되어 제시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 ① 포퍼는 상황과 선택의 재구성을 설명으로 보므로, (가)의 랑케가 사료를 통해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 치중한 것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비판하겠군.
- ② 포퍼는 역사적 설명에서 합리성의 근거를 개인의 인지 과정으로 환원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가)의 랑케가 역사적 진리에 도달하는 근거를 역사가의 직관에 두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포퍼는 설명이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지만, (나)의 험펠처럼 사건을 일반 법칙 아래 포섭하는 방식이 역사적 설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겠군.
- ④ 포퍼는 조건과 목표를 재구성해 선택의 합리성을 규명하려 하므로, (나)의 드레이가 제시한 실천적 추론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상황 논리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하겠군.
- ⑤ 포퍼는 행위자가 지녔던 목표를 바탕으로 선택을 설명하려 하므로, (나)의 드레이가 역사적 사건의 핵심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파악한 것에 공감하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격(排擊)하며
- ② 부인(否認)하며
- ③ 사양(辭讓)하며
- ④ 저항(抵抗)하며
- ⑤ 외면(外面)하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 시효라 한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거나 실행에 옮긴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진행을 ㉠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소멸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 민법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시작된다.

이 중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는 압류와 보전 처분은 집행 권원의 확보 여부와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적 요건과 효력에서 엄격한 구분을 보인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지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 처분은 아직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분권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예외적 조치이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부당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채권자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담보 제공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확정 판결 등에 기해 금전 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얻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묶어두는 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의해 권리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담보 제공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전 처분 내부에서도 보전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방어 수단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금전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압류와 마찬가지로 대상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데 있으므로, 채무자가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 그 목적을 대신한다면 법원은 즉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게 된다. 금전 이외의 특정 물건의 인도나 권리 자체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은 본질적으로 돈으로 대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기더라도 해당 목적물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가처분의 효력을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절차적 요건과 방어 수단은 상이하나, 이들은 모두 채권자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므로 공통적으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문이 대상 조치의 성격에 따라 해당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조치 자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만큼은 법원의 업무 지연이나 송달 불능으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청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소급효는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중단 사유가 실제로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조치의 효력과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엄격히 분리되어 작동한다.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조치 자체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래 채권의 소멸 시효는 조치 사실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만 비로소 중단된다.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앞선 예외 원칙에 따라 조치 신청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조치의 목적물이 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의 소멸 시효는 채권자의 조치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목적물이 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나 보전을 위해 묶어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취해진 조치 자체의 효력도 상실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다.
- ② 소멸 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 ③ 압류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신청 시점이 만료 전이라면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④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⑤ 도달주의 원칙에 따르면 결정문이 송달되어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도 인정된다.

11. 압류와 보전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행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나, 보전 처분은 판결을 통해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② 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임시로 동결하기 위함이고, 보전 처분은 확정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함이다.
- ③ 압류와 보전 처분 모두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나, 압류는 금전 채권만을, 보전 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만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압류는 즉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나, 보전 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보전 처분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단계에 그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채권 관계]
 권리 A: 갑이 을에게 가진 본래 권리
 권리 B: 을이 병에게 가진 5천만 원의 금전 채권

[사건 일지]

2026. 5. 1.	갑은 권리 A를 실행하기 위해 권리 B를 대상으로 법원에 '조치 X'를 신청함.
2026. 5. 8.	조치 X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병에게 송달됨.
2026. 5. 15.	조치 X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을에게 적법하게 도달함.

- ① A가 집행권원에 의해 권리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갑은 조치 X를 취하기 위해 향후 을이 입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겠군.
- ② 2026년 5월 8일에 결정문이 병에게 송달되어 조치 X 자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갑의 A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은 2026년 5월 1일로 소급되어 인정되겠군.
- ③ 조치 X가 2026년 5월 12일에 각하된 경우, 5월 15일에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A의 소멸 시효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새로이 시작되겠군.
- ④ B의 소멸 시효 완성일이 2026년 5월 12일이고 갑이나 을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월 15일에 적법한 통지가 도달하였더라도 A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겠군.
- ⑤ A가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 전의 금전 채권인 경우, 을이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 그 목적을 대신 하더라도 조치 X의 집행은 즉시 취소되지 않겠군.

13.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 ② 심장이 멈출 듯이 놀랐다.
- ③ 비가 멈추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 ④ 작업자가 안전을 위해 기계의 작동을 멈췄다.
- ⑤ 자동차가 사고 때문에 멈췄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분광 이미징은 빛을 수백 개 이상의 좁은 파장 대역으로 분광하여 대상의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스펙트럼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획득된 데이터는 2차원 공간 좌표 (x,y)와 파장 축인 λ 로 구성된 3차원 '데이터 큐브'의 형태를 띤다. 시스템의 광학적 성능은 분광기에 입사하는 빛의 경로를 제한하는 슬릿의 너비에 의해 결정된다. 인접한 파장의 빛을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해 내는 능력인 분광 해상도는 슬릿의 너비가 좁을수록 향상되지만, 슬릿을 통과하여 센서에 도달하는 광량은 너비에 비례한다. 한편, 이미지 품질의 척도인 신호 대 잡음비는 유효 신호의 세기를 잡음의 세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잡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유효 신호의 세기는 센서에 도달하는 총 광량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전하 축적 시간을 의미하는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한다. 센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입사 광량과 노출 시간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분광 이미징의 주된 방식인 '라인 스캔'에서는 노출 시간의 증가가 데이터의 공간적 왜곡을 유발한다. 라인 스캔은 슬릿을 통과한 1차원 공간 정보인 x좌표와 파장 정보인 λ 를 2차원 센서에 기록하고, 카메라의 상대적 이동을 통해 나머지 공간 정보인 y좌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때 노출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센서의 노출 시간 동안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량이 발생하여 ㉠ '모션 블러'가 나타나거나, 데이터 전송 용량과 속도의 한계인 대역폭의 제약으로 프레임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공간 정보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카메라의 이동 속도와 노출 시간, 그리고 지상 표본 거리 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지상 표본 거리는 이미지의 픽셀 하나가 나타내는 실제 지상의 물리적 거리이다. 라인 스캔 방식에서 획득되는 이미지의 y축 방향 실제 촬영 거리는 이동 속도와 노출 시간의 곱으로 결정된다. 만약 이동 속도와 노출 시간의 곱이 y축의 지상 표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 인접한 지점의 데이터가 소실되는 '언더 샘플링'이 발생하여 피사체의 형상이 축소된다. 반대로 이동 속도와 노출 시간의 곱이 y축의 지상 표본 거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일 지점의 데이터가 중복 기록되는 '오버 샘플링'이 발생하여 피사체가 길어지는 왜곡이 일어난다. 즉, 고품질 데이터 큐브의 획득은 분광 해상도와 신호 대 잡음비, 그리고 샘플링 정합성이라는 다변수 간의 최적화 문제로 귀결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 큐브는 대상의 2차원적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물질적 특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 ② 라인 스캔 방식에서는 센서의 2차원 평면 중 한 축은 공간 정보를, 다른 한 축은 파장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 ③ 슬릿의 너비를 넓히면 센서에 도달하는 광량이 증가하여 유효 신호의 세기가 커지므로 신호 대 잡음비 값은 개선된다.
- ④ 노출 시간을 늘리면 센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이 증가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로 인해 프레임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지상 표본 거리는 이미지의 픽셀 하나가 나타내는 실제 지상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며, 정확한 공간 정보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분광 해상도와 신호 대 잡음비 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15.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광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슬릿의 너비를 좁힐 때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늦추지 않고서 정상적인 공간 비율을 유지하려 한다면, 신호 대 잡음비의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② 언더 샘플링을 보정하기 위해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유지한 채 노출 시간만을 조절한다면, 왜곡은 해결되더라도 신호 대 잡음비는 저하될 것이다.
- ③ 오버 샘플링을 보정하기 위해 카메라의 이동 속도는 유지한 채 노출 시간만을 조절한다면, 모션 블러나 프레임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④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라인 스캔 방식을 사용한다면, 획득되는 데이터 정보들은 x좌표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만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 ⑤ 신호 대 잡음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할 때 정상적인 공간 비율을 얻기 위해 슬릿의 너비를 넓히면,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더 느리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센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노출 시간보다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슬릿의 너비를 좁혀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야 한다.
- ② ㉠은 노출 시간 동안 대상이 움직여 센서의 동일한 픽셀에 서로 다른 지점의 정보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노출 시간을 줄여야 한다.
- ③ ㉠은 슬릿의 너비가 너무 넓어 인접한 파장의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슬릿의 너비를 좁혀서 분광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
- ④ ㉠은 카메라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 노출 시간 동안 획득해야 할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줄이거나 조명을 더 밝게 하여 광량을 확보해야 한다.
- ⑤ ㉠은 지상 표본 거리보다 카메라가 이동한 거리가 짧아 동일한 지점이 중복 촬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높여 중복 촬영을 방지해야 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구원 갑은 지상 표본 거리가 10cm인 센서를 탑재한 드론으로 지면을 라인 스캔 촬영하고 있다. 현재 설정된 슬릿의 너비는 W , 노출 시간은 T , 드론의 이동 속도는 V 이며, 이 상태에서 획득된 이미지는 기하학적 왜곡 없이 정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① 갑이 분광 해상도 향상을 위해 슬릿 너비를 W 보다 좁히면 광량 감소로 신호 대 잡음비가 저하되므로, 이를 보완하려면 노출 시간을 T 보다 늘려야 하겠군.
- ② 갑이 줄어든 광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출 시간을 $2T$ 로 늘린다면, 노출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지상 표본 거리보다 길어져 피사체의 형상이 축소되는 왜곡이 발생하겠군.
- ③ 갑이 노출 시간을 $2T$ 로 유지하면서도 이미지 왜곡을 방지하려면, 드론의 속도를 $0.5V$ 로 감속하여 이동 거리와 지상 표본 거리를 일치시켜야 하겠군.
- ④ 갑이 드론 속도를 $2V$ 로 높여 촬영할 때 정상 비율을 얻으려면 노출 시간을 $0.5T$ 로 줄여야 하며, 이때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하려면 슬릿 너비를 W 보다 넓혀야 하겠군.
- ⑤ 갑이 W 와 T 를 유지한 채 고도를 높여 지상 표본 거리가 20cm로 커진다면, 기존 속도 V 에서는 오버 샘플링이 발생하므로 정상 비율을 얻기 위해 드론의 속도를 $0.5V$ 로 감속해야 하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유연수는 덕성이 높은 사씨와 혼인 하였으나 후사가 없어 교씨를 첩으로 들인다. 아들을 낳은 교씨는 간악한 문객 동청과 결탁하여 정실 자리를 차지하려는 흉계를 꾸민다. 교씨는 동청의 심복인 냉진을 시켜 흉계를 실행하고, 유연수는 조정의 명을 받아 산둥 지방으로 시찰을 떠난다.

이때 유 한림이 ㉠ 산둥 지방에 이르러 주점에 들렀을 때, 문득 한 청년이 들어와 읊하였다. 성명은 냉진이라 하는데 풍채가 매우 준매하고 언사가 유수와 같았다. 유 한림이 암행 중이라 신분을 숨기고 그와 더불어 술을 권하며 동행하게 되었다. 유 한림이 밤에 잘 때에 보니, 냉진의 속 옷고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옥지환이 매여 있었다. 이상히 여겨 자세히 본즉 옥의 색깔과 새긴 모양이 자기 부인 사씨의 것과 똑같았다. 의심이 나서 청하여 보니 과연 사씨의 옥지환인데, 이상하게도 푸른 털실로 동심결*이 맺어 있었다. 유 한림이 묻되,

“참 좋은 보배로군. 그대는 그것을 어디서 구하였나?”

냉진이 ㉡ 거짓으로 슬픈 모양을 꾸미고 묵묵히 옥지환을 받아 도로 옷고름에 매었다. 유 한림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재차 물으니, 냉진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다.

“그동안 형과 정의가 깊어졌으므로 숨길 필요도 없지만, 정든 사람의 정표로만 알고 나를 비웃지 말아 주십시오.”

“그처럼 정든 사람이 있으면 왜 같이 살지 않고 남방으로 가는가?”

“호사다마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좋은 인연이 두 번 오지 않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옛말에 **규문*에 한번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에 들어감과 같다** 하더니,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소저와의 정사이때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냉진은 짐짓 자기 사랑의 고민을 고백하는 듯이 탄식하여 보였다. 유 한림은 냉진과 헤어진 후에도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많구나. 혹 집안의 중들이 그 옥지환을 **훔쳐 내다가 팔아 버린 것일까?** 그러나 그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의 정표라던 낫두리는 무슨 뜻일까?’

유 한림의 의심과 걱정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심란스럽기만 하였다.

(중략)

그런 근심을 하면서 반년 만에야 국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니 사 부인이 ㉠ **친정**에서 돌아와 있는 지도 오래였다. 유 한림은 비로소 장모의 별세를 알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며 조상하고, 교씨와 두 아들 장지와 인아를 만나서 그림던 회포를 풀었다. 그리고 객지에서 냉진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옥지환이 궁금 해서 사씨 부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전에 부친께서 내려 주신 옥지환을 어디 간수해 두었소?”

“그대로 패물 상자에 넣어 두었는데 그건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기로 궁금해서 보고자 하오.”

사씨가 시비에게 금상자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상자를 갖다가 열고 본즉 다른 패물은 전부 그대로 있었으나 그 옥지환 한 개만 보이지 않았다. 사씨가 깜짝 놀라서,

“분명히 이 상자 속에 넣어 두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한림의 안색이 급변하고 말을 하지 않으므로 더욱 당황해서 물었다.

“그 옥지환의 행방을 한림께서 아십니까?”

유 한림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 “**자기가 남에게 주고서 나한테 묻는 건 무슨 심사요?**”

사씨는 이 같은 남편의 뜻밖의 말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착잡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시비가 두 부인에게서 오셨다고 고하였다. 유 한림이 황망히 고모를 맞아 들여 인사를 나눈 뒤에, **집안에 대변이 생겼음을** 알렸다. 유 한림은 냉진이라는 청년을 만나 옥지환을 보고 그에게 들은 말이 이상해서 ㉢ **집**에 와 찾아보았으나 과연 없으니 이를 어찌할까 하고 상의하였다. 사씨가 유 한림의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다.

“첩의 평소 행색이 성실치 못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의심하고 지금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첩의 입으로는 변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림의 뜻대로 하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군자는 참언을 끝이듣지 말고 참소하는 자를 엄중히 다스리라 하였으니, 한림은 살피셔서 억울함이 없게 하십시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동심결: 전통 매듭의 한 종류로 곁흔 예물 등을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

* 규문: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안방.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냉진은 유 한림에게 자신의 속내를 숨긴 채, 옥지환과 관련된 사연을 털어놓으며 유 한림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② 유 한림은 냉진이 지닌 옥지환에 대한 사연을 들은 후, 도난당한 물건이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 ③ 유 한림은 서울로 돌아와 장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교씨와 두 아들을 만나며 그리운 마음을 풀고 있다.
- ④ 사씨는 유 한림이 옥지환의 행방을 묻기 전까지 그것이 패물 상자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사씨는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면서도, 유 한림에게 참소하는 자를 찾아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고, ㉡은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하기 위한 감정적인 행동이다.
- ② ㉠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행동이고, ㉡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행동이다.
- ③ ㉠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염려하는 행동이고, ㉡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동이다.
- ④ ㉠은 옥지환에 얽힌 사연이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이고, ㉡은 상대가 옥지환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음을 확인하는 행동이다.
- ⑤ ㉠과 ㉡은 모두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이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 한림이 공적인 임무 수행 중 사적인 근심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경험은 이후 갈등의 계기가 된다.
- ② ㉠은 유 한림이 익숙한 사물을 보고 의구심을 품게 되는 공간으로, 상대방의 단호한 태도는 유 한림의 내면적 불안을 증폭시키게 된다.
- ③ ㉡은 사씨가 유 한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공간으로, 이 시기의 단절은 유 한림의 의심이 커지게 되는 배경이 된다.
- ④ ㉢은 사씨가 진심 어린 당혹감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유 한림은 그 모습을 보고 사씨에게 의구심을 표출하게 된다.
- ⑤ ㉢은 유 한림이 억눌러 왔던 의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외적 갈등으로 전환되는 장소가 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씨남정기」에서 악인은 실재하는 사물에 허구적 서사를 결합하여 타인의 판단을 교란하는 기만 전략을 구사한다. 이때 사물이 지닌 물리적 실재성은 그에 덧입혀진 서사의 진위까지 보증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내며, 이로 인해 정보 수용자는 허구적 서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비록 수용자가 사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조작된 물증과 정황이 주는 압박으로 인해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해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곤 한다.

- ① 냉진이 옥지환에 '동심결'을 맺어 유 한림에게 노출한 것은, 옥지환이라는 '물증'에 남녀 간의 정교라는 '허구적 서사'를 결합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군.
- ② 냉진이 '규문에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에 들어감과 같다'며 탄식하는 것은, 옥지환에 여인과의 은밀한 사랑이라는 서연을 입혀 유 한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군.
- ③ 유 한림이 옥지환을 보고 '훔쳐 내다가 팔아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물증의 존재는 확인했으나 악인들이 의도한 허구적 서사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유 한림이 '남에게 주고서 나한테 묻는 건 무슨 심사요?'라고 말한 것은, 상자 속에 옥지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악인들이 만든 허구적 서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군.
- ⑤ 유 한림이 고모에게 '집안에 대변'이라며 상의하려 한 것은, 그가 물증과 서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춡고**, **누긔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 **썩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 **짜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반면에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이면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 이곡, 「차마설」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특정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의 태도를 모색하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상황을 응시하며 성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사람처럼 그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특정한 문장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바깥의 바람과 맞물려 일어나는 내면의 괴로움으로, 화자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정서를 드러낸다.
 - ② ㉡는 계속해서 부는 바람과 대비되는 소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③ ㉢는 화자가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해 곱씹는 내면의 과정을 비유한 것으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는 화자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드는 외부의 시련으로, 화자의 정신적 지향점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이 된다.
 - ⑤ ㉣는 말의 상태에 따라 쉽게 달라지는 것으로,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이어진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궁핍을 확인하게 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외부의 자극을 계기로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게 하는 표상이다.
 - ③ ㉠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이고, ㉣은 화자가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매개이다.
 - ④ ㉠은 화자가 무기력함 속에 침잠하게 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투영한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그러한 체념을 굳히게 만드는 대상이다.

25. (다)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에서 ‘빌린 것이 돌아가면 임금도 외톨이가 된다는 통찰은, (나)에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느끼는 화자의 고독과 맞닿아 있군.
 - ② (다)에서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는, (나)의 화자가 ‘슬픔’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응시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대비되는군.
 - ③ (다)에서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나)에서 화자가 ‘아내’와 ‘집’을 상실한 상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군.
 - ④ (다)에서 준마를 탔을 때 ‘의기양양’해지는 모습은, (나)에서 화자가 ‘내 뜻이며 힘’으로 자신을 이끌기 어렵다고 느끼는 모습과 대비되는군.
 - ⑤ (다)에서 ‘여위고 둔’한 말을 탈 때조차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했다고 서술한 것은, (나)의 화자가 ‘춤과 누긋한 방’에서 느끼는 위태로운 심리를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에서 주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때 주체가 처한 상황은 정서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주체는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고유한 것으로 떠안을 때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만, 통념에 매몰되어 주어진 상황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직면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잃는 자기 상실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주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게 하는 자각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다)에서 글쓴이가 ‘말’을 빌려 타며 심리 변화를 겪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 진정한 자기 이해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통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 ③ (다)에서 글쓴이가 ‘빌린 바가 많아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자기 상실의 상태를 경계하는 것이군.
- ④ (가)에서 화자가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는 계기로, (다)에서 글쓴이가 ‘차마설’을 짓는 것은 진정한 자기 이해에 나아가는 행위로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화자가 ‘말이 언덕 위에 섰다’고 하는 것과 (다)에서 글쓴이가 ‘남의 것’을 빌린 이치를 깨닫는 것은 모두, 주체가 자기 상실 없이 주어진 상황의 의미에 직면함을 보여 주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눈이 내리는군요.”
버스 안. 창 쪽으로 앉은 사나이는 얼굴빛이 창백하다. **실직한** **검정 외투** 속에 **고개를 웅크리고** 있다. 긴 머리칼이 귀 뒤로 고개

위에 당굴 즐기처럼 달라붙었는데 가마 부근에서는 몇 날이 하늘을 향해 곳곳이 섰다.

“예. ㉠ 진눈깨빈데요.”

(중략)

“이 차, 어디로 가나?”

검은 색안경을 쓴 사람이 고개를 뒤로 발딱 젖히고 차 안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재풀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가우뚱해 보이고 차의 문이 만들어 주는 좁은 시야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저으기 마음이 풀린다. 색안경은 사치품일까, 필수품일까. 대부분의 경우, 필수품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길거리에서 파는 **백 원짜리로 사치를 하려고 하다니!** 그는 이천원짜리를 사려다가 너무 비싸서 천원을 주고 중고를 산 바 있다. 그것은 지금 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 눈만 하얗게 쌓인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코위에 걸칠 수 있다. 김 씨는 색안경을 낀 사람을 보면 장님을 생각한다. 그는 한때 자기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장님이 되어 안마쟁이 노릇을 하는 ㉡ 상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전투에서 눈을 부상당한다. 육군 병원에 입원한다. 눈에는 봉대가 감겨져 있다. 애인이 찾아온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차이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다. 장님이 되어 색안경을 낀다. 지팡이로 밤의 아스팔트 위를 더듬으며 통소를 분다.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자가 그를 부른다. 귀에 익은 목소리다.

[중략 부분 줄거리] 김 씨, 이 씨(잠바 입은 사나이), 박 씨는 우연히 합석하여 군하리의 여인숙에 묵게 된다. 이 씨와 박 씨가 여인숙 주인 여자와 술을 마시는 동안, 김 씨는 술에 취해 옆방에 있는 소년의 방으로 들어간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하는구나.”

“예. 접때두 일등 했어요.”

아, 이진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을 주제에.

(중략)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혼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 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A]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 리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땀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나 다 템즈 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중략)

그녀는 다시 불 켜진 방 앞으로 간다. 그리고 방문을 연다. 김 씨는 네 다리를 이불 밑에 쭈셔 넣은 채 새우처럼 등을 굽히고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다. 여자는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낮에 본 사람이 분명하다. 대학생! 그녀는 살췐이 김 씨의 어깨를 밀어서 바로 눕힌다. 벡타이가 목에 쾅기는지 턱을 좌우로 흔든다. ‘췐, 췐, 옷두 벗지 않구. 가없어라.’

그녀는 누나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벡타이를 풀고, 이불을 젖혀서 바지를 벗기고 와이셔츠를 벗기고 요를 바로 펴고 김 씨가 꿈틀하더니 일어날 듯하다가 다시 요 밑으로 파고든다. 여자는 화가 난다. 그의 팔다리를 요 밑에서 빼어내고 그를 안아서 간신히 요 위에 눕힌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준다. 베개를 바로 베 주고 그대로 앞드려서 그 얼굴을 들여다본다. 대학생! 남포 불이 피시식 소리를 낸다. 그녀는 일어나서 방바닥에 널려 있는 옷들을 주섬주섬 벽에다 건다. 남포는 호야가 시커멓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위에서부터 남포 호야 속으로 살며시 바람을 불어 넣는다. 밖에서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다.** ㉤ 그녀가 남겨 놓 발자국을 하얗게 지우면서.

- 서정인, 「강」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색안경 낀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가 사라지자 마음이 풀렸다.
- ② 김 씨는 소년의 방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들어갔다.
- ③ 김 씨는 소년의 남루한 행색에 비해 당당한 태도를 뻔뻔하다고 여겼다.
- ④ 여자는 잠든 김 씨의 벡타이를 풀어 주고 옷을 벗겨주며 김 씨에 대해 가없어하는 마음을 느꼈다.
- ⑤ 여자는 방바닥에 널린 옷들을 벽에 걸어 두고 남포 호야 속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2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며,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현재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시선을 통해 외부 대상을 묘사하다가 점차 내면 심리로 초점을 이동하여 의식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 ④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서술하여, 인물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이 소년의 미래를 가정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날씨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목적지를 향해 가는 버스 안 승객들의 들뜬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배경이다.
- ② ㉡은 김 씨가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상황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타인과 소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투영되어 있다.
- ③ ㉢은 소년의 성취를 보여주는 소재이지만, 김 씨에게는 자신의 실패한 삶을 투영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 ④ ㉣은 소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비유한 것으로, 가난하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김 씨의 신념이 반영된 생각이다.
- ⑤ ㉤은 여자가 지나온 삶의 궤적을 덮어주는 소재로,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김 씨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강」은 1960년대 도시민들의 내면 풍경을 포착한다. 서술자는 인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독자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유추하게 하며, 인물들 간의 대화는 각자의 상념에 갇혀 진정한 소통에 이르지 못하는 단절적 양상을 보인다. 작품 속에는 도시민으로서 서사의 중심에 놓이는 인물과, 서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인물이 공존한다. 작가는 감각적인 자연 현상의 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삭막한 현실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포용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서술자가 '실락한 검정 외투 속에 고개를 웅크리고' 있는 김 씨의 모습을 묘사하되 그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지 않는 것은, 독자가 인물의 처지와 내면을 스스로 유추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군.
- ② 색안경 쓴 사람은 서사의 중심에 놓인 도시민으로, 그의 '이 차, 어디로 가나?'라는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도시민들 간의 소통 부재를 형상화한 것이군.
- ③ 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백 원짜리로 사치를 하려고 하다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천 원짜리 중고 색안경을 떠올리는 것은, 물질적 요소를 중시하는 도시민적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④ 김 씨가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무너져 내린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군.
- ⑤ 밖에서 소리 없이 눈이 '쌓이고' 있는 풍경은, 여관방의 인물들의 초라하고 쓸쓸한 삶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에 대한 연민과 위안의 시선을 드러내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에 가 주인 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이 집 저 집 아무 데나 적객(謫客)* 주인 뉘 좋달고

관력(官力)으로 뽐박하고 세부득이 맡았으니
 관차(官差)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 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아려 보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이 집 저 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거늘
 관인들은 인정 받고 손님네는 흑언(酷言) 들어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 있어 와 계신가
 내 살림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까
 앞뒤에 전답 없고 물속으로 생애(生涯)하야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윗녘에 장사 가니
 ㉠ 삼망(三網)*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신검 처자 세 식구의 호구하기 어렵거든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중략)

어와 민망하다 주인 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비경하다
 혼잣말로 군말하듯 나 들으라 하는 말이
 건너 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득죄하고
 절도(絶島)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 고기 낚기 나무 베기
 자리 치기 신 삼기와 보리 동냥 하여다가
 주인 양식 보태는데 한 군데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 되되 공한 밥만 먹으려노
 쓰자 하는 열 손가락 꿈짝이도 아니하고
 걸자 하는 두 다리는 움직이도 아니하네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 하자 하니 ㉡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 치기 신 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 보자
 탈망건 갓 숙이고 홀중치막 띠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세살 부채 ㉢ 차면(遮面)*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 소일조로 가지고서
 비스듬히 걷는 걸음 걸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 꿈인고

(중략)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사립문을 드자 할까 마당에 섰자 하라
 철없는 어린아이 소 같은 짧은 계집
 ㉤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향다리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월 십오 야 상원 야 밝은 달에
 장안 시상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금준은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 다리 판자 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 광통 다리 굽은 다리 수포 다리
 효경 다리 마전 다리 아랑 위 걸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 다리 다리 내려 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 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 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향다리**
수종다리 습다린가 천생이 병신인가

- 안조원, 「만언사」 -

- * 적객(謫客): 귀양살이하는 사람.
- * 삼망(三網): 물고기를 잡는 그물.
- * 차면(遮面): 부채로 얼굴을 가림.

(나)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①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결쇠
 크나큰 장도리로 독다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 작자미상 -

(다)

②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듯단가.
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하여 화자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대비하여, (다)는 노래를 만든 이의 심정에 공감하며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인이 생계를 위해 얻으려 노력하는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함을 보여준다.
- ② ㉡은 화자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기잡이를 하려 하지만, 신체적 한계로 인해 실행에 옮기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요인이다.
- ③ ㉢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동냥 하러 나가는 화자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부각한다.
- ④ ㉣은 화자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지니고 나선 물건으로,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 ⑤ ㉣은 아이와 여인들이 화자를 가리키는 행위로, 낯선 타지에서 구경거리가 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어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3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화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물이고, ㉡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화자가 시도하는 매개체이다.
- ② ㉠은 답답한 내면을 해소하기 위해 화자가 상상 속에서 고안한 장치이고, ㉡는 시름을 풀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화자가 수행하려는 수단이다.
- ③ ㉠은 화자의 답답함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게 해주는 유희의 대상이다.
- ④ ㉠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숨기려 하고, ㉡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고통을 타인이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의존하는 초월적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근심과 답답함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가)의 화자는 이러한 정서를 구체적인 생활상의 묘사를 통해 드러낸다. 반면 (나)와 (다)는 이러한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내면의 욕구를 형상화한다. 이때 해학은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거나 심리적 위안을 얻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다리를 '귀향다리 수종다리'라며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고모장지 세살장지' 등 구체적인 문살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은,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③ (다)에서 '진실로 풀릴 거시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노래를 통해서라도 쌓인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내면 욕구를 형상화한 것이군.
- ④ (가)에서 '걸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다)에서 '노래 삼긴 사람'의 '시름'에 공감하는 모습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서 비롯된 정서를 드러낸 것이군.
- ⑤ (나)에서 '가슴에 창'을 내어 닫힌 마음을 여는 것과 (다)에서 노래를 '불러' 시름을 푸는 것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내면적 욕구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출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화면을 켜며)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 저 별들 사이에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흥기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구 궤도를 뒤덮고 있는 시한폭탄, '우주 쓰레기'와 '케슬러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 로켓의 파편, 페인트 조각 등을 말합니다. 현재 추적 가능한 10cm 이상의 쓰레기만 해도 약 3만 개가 넘습니다. (㉠ 자료 제시) 이 그래프를 보시죠. x축은 연도, y축은 궤도상 물체의 개수입니다. 2007년과 2009년 부근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치솟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바로 인공적인 충돌 실험과 위성 간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충돌이 수천 개의 파편을 만들어내며 그래프를 수직 상승시킨 것이죠.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더 작은 파편을 무한히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쇄 충돌 현상을 '케슬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 자료 제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면, 파편 하나가 위성을 치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다른 위성들을 덮치는 모습이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정 궤도는 파편으로 꽉 차서 인류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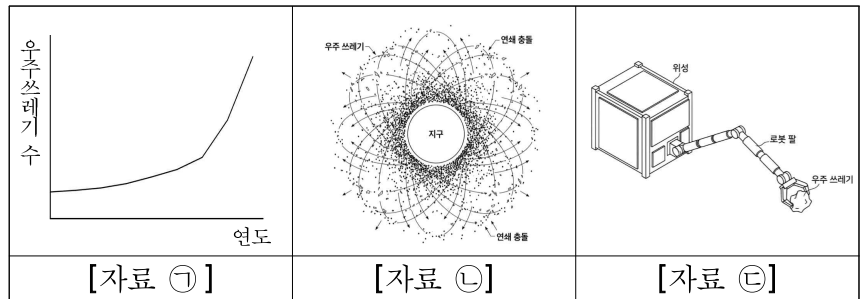
해결책은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포획하거나, 작살을 쏘거나, 자석을 이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 중입니다. (㉢ 자료 제시) 이 사진은 그중 '로봇 팔'을 이용해 회전하는 파편을 잡는 수거 위성의 개념도입니다. 하지만 파편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궤도가 불규칙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거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주 개발은 인류의 꿈이지만, 그 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주 환경 보호'라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별들이 흥기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이제는 우주를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대상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전문가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발표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며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상반된 관점을 지닌 두 이론을 비교하여 청중에게 비판적 판단을 맡기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고 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인위적 사건들이 우주 쓰레기의 총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한다.
- ② ㉠을 활용하여, 파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궤도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을 활용하여, 하나의 충돌이 기하급수적인 파편 생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케슬러 증후군'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 ④ ㉡을 활용하여, 우주 쓰레기 문제가 방치될 경우 인류가 우주 궤도를 영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 ⑤ ㉢을 활용하여, 현재 연구 중인 구체적인 해결 기술을 소개하되,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우주 쓰레기가 총알보다 빠르다니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케슬러 증후군이 심해지면 내가 매일 쓰는 지도 앱이나 인터넷 통신도 마비될 수 있다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

학생 2: 청소 위성의 로봇 팔 기술은 흥미롭지만,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액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 실제 예산 규모나 상용화 예상 시점 같은 정보를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3: 기술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위성을 쏘아 올릴 때 폐기 계획까지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가 불충분함을 언급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소개된 기술적 해결 방안의 원리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결 지어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38~42] (가)는 강연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들은 학생들의 대화이며, (다)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교지 기사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연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핵심은 '도파민'과 '가변적 보상'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보상이 예측 가능할 때보다, 언제, 얼마나 큰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를 '가변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SNS의 '새로 고침'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당길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게시물이 나올지,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지 알 수 없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 뇌를 자극하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주목 경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디지털 디톡스'와,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학생 1: 오늘 강연 진짜 흥미롭지 않았나? 내가 왜 시험 기간에도 숏폼 영상을 끊지 못하는지 이제 알겠어. 다음 영상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기대감이 바로 '가변적 보상'이었던 거야.

학생 2: 맞아.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좀 무섭기도 해. 우리 학교 학생들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잖아. 이번 교지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어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강연에서 말한 '디지털 디톡스'는 좀 뻔하지 않아? 그냥 "폰을 쓰지 마라"는 건 실천하기 어렵잖아.

학생 1: 그렇긴 해. 그럼 강연 내용을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좀 변형해 보자. ① 도파민 분비 원리를 공부에 적용해 보는 건 어때? 공부나 독서 같은 활동에도 '가변적 보상' 요소를 넣는 거야.

학생 2: 오, 그거 신선한데? 예를 들어 '랜덤 보상 스티디' 같은 거? 공부 시간을 채우면 제비뽑기로 빵이나 대박 간식을 주는 거지. 그럼 애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학생 3: 음, 잠깐만. 방금 내가 제안한 방식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강연자님이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스스로 만들라"고 강조하셨잖아. 불확실한 보상은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중독을 유발하니까, 오히려 확실한 성취감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어... 그런가? 내가 강연 내용을 반대로 적용할 뻔했네. 네 말이 맞아. 도파민을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면,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자기 주도적 루틴'을 강조해야겠다.

학생 2: 그래. 그리고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프리 존'을 운영해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이자.

학생 3: 참, 그리고 기사를 쓸 때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극적인 말 대신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면 좋겠어.

학생 1: 알았어. 반영해서 써 볼게.

(다)

기사 초고 제목: 당신의 뇌는 지금 '해킹'당하고 있다 -

[A]

수업 시간, 진동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도파민'의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최근 초청 강연에서 뇌과학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가변적 보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측할 수 없는 알림과 콘텐츠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주목 경제'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정교한 덫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우리의 뇌를 해킹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중독의 고리를 끊고 주체적인 삶을 되찾기 위한 두 가지 처방전을 제안한다.

첫째, '예측 가능한 보상'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한 보상은 중독을 부르지만 확실한 보상은 건강한 성취감을 준다. 예를 들어 학습 플래너를 쓰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이는 도파민을 긍정적인 동기 부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둘째, 학교 안에 '디지털 디톡스 존'을 조성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기업들의 고도화된 설계를 이겨내기 힘들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잠시 화면을 끄고, 진짜 세상에 '접속'해 보자.

38. (가)와 (나)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화제에 대한 청중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나)는 (가)에서 제시된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 ② (가)는 권위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는 (가)의 정보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가)에서 언급된 비유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 ④ (가)는 대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나)는 (가)의 분석 결과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며 다른 관점에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청중의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39. (가)를 고려할 때, ㉠과 관련하여 (나)의 대화 흐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은 제안했으나, 학생 2의 반대와 학생 3의 대안 제시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였다.
- ② 학생 1은 ㉠을 통해 강연자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으나, 학생 3의 설득으로 강연 내용을 수용하게 되었다.
- ③ 학생 1이 ㉠을 제안하자 학생 2는 이에 동조하였으나, 학생 3은 강연 내용을 근거로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④ 학생 1은 ㉠이 강연의 핵심 논지와 상충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2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 ⑤ 학생 1은 ㉠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3의 오개념을 바로 잡아 주며, 강연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40. (가)와 (나)의 정보가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설명한 '가변적 보상'과 '주목 경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② (나)에서 학생 3이 제기한 '불확실한 보상의 위험성'을 수용하여, (다)에서는 '예측 가능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나)에서 논의된 '랜덤 보상 스테디'의 사례는 (다)에서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제시되었다.
- ④ (나)에서 학생 2가 제안한 '물리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은 (다)에서 '디지털 디톡스 존' 조성 제안으로 구체화되었다.
- ⑤ (가)에서 언급된 '디지털 디톡스'의 개념은 (나)에서의 논의를 거쳐 (다)의 두 번째 해결 방안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41. (다)의 표제와 부제 구성을 고려하여 [A]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파민 중독의 원인 분석과 사회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 ② 주목 경제의 실체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묻다
- ③ 가변적 보상의 늪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자
- ④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 방안
- ⑤ 뇌과학으로 본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효율의 상관관계

42. (나)를 바탕으로 (다)를 점검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 3이 제안한 '표현 순화'가 제목과 본문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킹'을 '영향'으로, '노예'를 '의존적 사용자'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② 학생 2가 제안한 '스마트폰 프리 존'의 운영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 ③ 학생 1이 언급한 '자기 주도적 루틴'의 강조가 누락되었으므로, 첫째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예시로 보강해야 한다.
- ④ 학생 3이 우려한 '불확실한 보상의 위험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으므로, 도파민 분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 ⑤ 학생 2가 제안한 '학교 차원의 환경 조성'이 개인적 차원의 노력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므로, 두 번째 해결 방안의 분량을 늘려야 한다.

[43~45] 다음은 학생의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주제: 노키즈존 확산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목적: 교내 토론 대회를 앞두고, 학급 게시판에 친구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글을 씀.
 예상 독자: 노키즈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같은 반 친구들

[초고]

최근 카페나 식당 입구에 '노키즈존'이라고 적힌 팻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업주들은 영업의 자유와 다른 손님들의 배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의 ㉠ 관용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징후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 불편을 겪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실수를 통해 사회적 예절을 배워나가야 한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에게서 '배울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몇몇 아이들의 일탈을 이유로 모든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이다.

또한, 노키즈존은 육아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진 부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을은 커녕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결책은 '금지'가 아니라 '케어'에 있다. 최근 일부 매장에서는 '노키즈존' 대신 '케어 키즈 존'을 도입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매장 측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서로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고 배려할 때, 협오와 배제가 아닌 공존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43.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이 지닌 당위성을 뒷받침해야겠어.
- ② 유추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식의 부당함을 비유적으로 부각해야겠어.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야겠어.
- ④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재반박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입증해야겠어.

44. <보기>는 초고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A: 관용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영업 방해로 인한 업주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학생 B: 일부 매장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케어 키즈 존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

학생 C: 아이들의 배울 권리만큼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하고 싶은 다른 손님들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 ① ㉠과 관련하여, 학생 A는 관용과 배려의 가치에 공감하면서도, 노키즈존을 둘러싼 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질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과 관련하여, 학생 C는 노키즈존의 확산이 관용의 상실이 아니라, 아동과 성인의 공간을 분리하려는 합리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다.
- ③ ㉣과 관련하여, 학생 C는 소수의 문제 행동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과 관련하여, 학생 A는 아이들의 사회화 교육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 ⑤ ㉢과 관련하여, 학생 B는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상호 배려만으로는 현실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조사

㉠-1 Q. 노키즈존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복수 응답)

일부 부모의 방임적 태도	72.3%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행동	65.8%
업주의 영업권 보장	42.1%

㉠-2 Q. 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가?

찬성	71%
반대	17%
잘 모르겠다	12%

㉡. 전문가 인터뷰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실수를 교정받는 과정에서 학습합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은 이러한 '사회적 학습의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정보

「아동복지법 제3조」“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키즈존을 차별 행위로 규정함.)

- ① ㉠-1을 활용하여, 노키즈존의 주된 원인으로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지목된 점을 근거로, 4문단에서 제안한 '케어 키즈 존'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2를 활용하여,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주장이 대중적 인식과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입부로 활용한다.
- ③ ㉡을 활용하여, 노키즈존이 단순히 현재의 차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성 결여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2문단에 보강한다.
- ④ ㉢을 활용하여, 노키즈존 운영은 아동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단순한 영업 방침 이상의 인권 문제임을 3문단에 추가한다.
- ⑤ ㉠-2와 ㉡을 종합하여, 노키즈존 찬성 여론이 높은 현실과 아동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4문단의 대안으로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의 높임 선어말 어미는 앞뒤 형태소의 음운 환경이나 문장의 통사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 끝소리에 따라 세 계열로 교체되었는데, 다음 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간 끝소리	문헌 용례
ㄱ, ㄷ, ㅅ, ㅎ	옷 입스바 - 『월인석보』
ㄷ, ㅈ, ㅊ	法(법) 듣좁고 - 『석보상절』
모음, ㄴ, ㄹ, ㄷ, ㅌ	世尊(세존)을 보습고 - 『석보상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첫소리는 어간 끝소리가 ‘ㄱ, ㄷ, ㅅ, ㅎ’일 때 ‘ㅅ’, ‘ㄷ, ㅈ, ㅊ’일 때 ‘ㅈ’, 울림소리일 때 받침음 ‘ㄷ’으로 실현되었다. 가운데소리인 모음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이면 ‘·’, 음성이면 ‘-’가 선택되었다. 또한 이 선어말 어미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끝소리 ‘ㅂ’이 유지되었으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ㅂ’이 순경음 비음 ‘ㅍ’으로 약화되어 교체되었다. 표의 ‘입스바’는 어간 ‘입-(穿)’에 ‘-습-’과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하면서 ‘ㅂ’이 ‘ㅍ’으로 교체된 결과이다.

주어인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뒤따르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로 교체되었다. 이때 ‘-샤-’ 뒤에 오는 어미의 첫 모음 ‘아/어/오’는 표기상 탈락하였다. 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바로 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두 형태소 사이에 모음 ‘·’나 ‘-’가 의무적으로 개입하였다. 개입하는 모음 역시 모음 조화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 모음이 개입함에 따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끝소리 ‘ㅂ’은 모음을 만난 환경이 되어 ‘ㅍ’으로 교체되었다. 예컨대 ‘보-(見)’ 뒤에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 차례로 결합하면 모음이 개입하여 ‘보스샤시-’로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낼 때는 종결 어미 앞에 평서형 선어말 어미 ‘-이-’나 의문형 선어말 어미 ‘-잇-’을 결합했다. ‘-잇-’ 뒤에는 의문형 종결 어미 ‘-가’ 또는 ‘-고’가 결합했는데, 문장에 의문사가 없을 때는 ‘-가’ 계열이, 의문사가 있을 때는 ‘-고’ 계열이 선택되었다. 한 용언에 세 가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모두 쓰일 때에는 ‘객체-주체-상대’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가운데소리는 선행하는 어간 끝음절 모음과 모음 조화를 이루며 결정되었다.
- ②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뒤따르는 어미의 첫 모음을 표기상 탈락시켰다.
- ③ 의문형 선어말 어미 뒤에 결합하는 종결 어미는 의문사의 유무라는 문장의 통사적 조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선택되었다.
- ④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끝소리가 ㅍ으로 약화되는 현상은 앞선 어간 끝음절 모음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다.
- ⑤ 한 용언에 세 가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모두 쓰일 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배열되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 臣下(신하) | 님그믐 ㉠ (돕-(助)+-아)
[신하가 임금을 도와]
- 王(왕)이 부텃긔 ㉡ (못-(迎)+-아)
[왕이 부처를 맞이하시어]
- 부테 命(명) ㉢ (ㅎ-(爲)+-아)
[부처가 명(命) 하시어]
- 菩薩(보살)이 世尊(세존)스긔 ㉣ (니르-(謂)+-고)
[보살이 세존께 말씀하시고]
- 이 ㉤ (오-(來)+상대 높임 의문)
[이는 누가 오십니까]

- ① ㉠은 어간 끝소리가 ‘ㅂ’이라 ‘-습-’이 선택되고, 뒤따르는 모음 어미의 영향으로 ‘ㅂ’이 약화된 ‘돕스바’이겠군.
- ② ㉡은 어간 끝소리가 ‘ㅈ’이라 ‘-좁-’이 선택되고, 모음이 개입함과 동시에 주체 높임이 ‘-샤-’로 교체된 ‘못즈샤’이겠군.
- ③ ㉢은 주체 높임 어미 뒤에 모음 어미가 와서 ‘-샤-’로 교체된 후, 뒤따르던 어미의 첫 모음이 탈락한 ‘ㅎ샤’이겠군.
- ④ ㉣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 ‘-습-’이 선택되고, 뒤에 결합하는 주체 높임 어미 ‘-시-’ 앞이 자음 환경이므로 ‘ㅂ’이 유지된 ‘니르습시고’가 되겠군.
- ⑤ ㉤은 문장 안에 의문사가 존재하므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오잇고’로 실현되었겠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복합적인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는 어떤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다음 자료의 발음 과정을 분석해 보자.

[자료]

- ㉠ 꽃잎차 [꼰닙차] ㉡ 물약병 [물락뽕] ㉢ 흙일꾼 [흥닐꾼]
- ㉣ 값진일 [갑찐닐] ㉤ 걸핍기 [거탈끼] ㉥ 닭뻗만 [닥뻗만]

- ① ㉠과 ㉡는 모두 음운의 첨가가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같다.
- ② ㉡와 ㉢는 모두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다르다.
- ③ ㉢와 ㉣는 모두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같다.
- ④ ㉣와 ㉤는 모두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같다.
- ⑤ ㉤와 ㉥는 모두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그 종류는 서로 다르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안길 때, 안긴문장 내부의 특정 문장 성분이 안은문장의 성분과 중복되거나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 그 성분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안은문장의 종류와 생략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봅시다.

- <자 료>
- ㉠: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농부들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 ㉡: 동생은 내가 예전에 사 준 지갑을 친구에게 선물했다.
 - ㉢: 누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식탁에 놓았다.
 - ㉣: 우리는 어릴 적에 자주 놀던 동네로 이사를 갔다.
 - ㉤: 그는 남들이 모르게 그 일을 조용히 처리했다.

- ① ㉠에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생략된 관형사절과,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명사절이 쓰였군.
- ② ㉡의 안긴문장에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부사어로 생략되었고, 수식받는 체언과 동일한 대상이 목적어로 생략되었군.
- ③ ㉢의 관형사절에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이 생략되어 있으며, 이는 안긴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군.
- ④ ㉣의 관형사절에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주어로 생략되었고, 수식받는 체언과 동일한 대상이 부사어로 생략되었군.
- ⑤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쓰였으며, 그 내부에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동일한 대상이 생략되었군.

3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도서관에서 나온 지훈이 집에 있는 소연과 통화하는 상황]
지훈: 소연아, ㉠ 지금 출발할 거야?
소연: 응, ㉡ 방금 나갈 준비 다 했어. 내가 ㉢ 어제 학교에서 빌려준 책은 챙겼지?
지훈: 응, ㉣ 아까 가방에 챙겨 났어. ㉤ 이따가 시민공원에서 만나면 돌려줄게. 너 공원으로는 ㉥ 올 때 자전거 타고 올 거야?
소연: 응, 자전거로 ㉦ 거기까지 갈 거야. 도착하면 시민공원 남문 입구를 마주 보고 ㉧ 오른쪽에 있는 벤치로 와. ㉨ 그때 우리가 만났던 곳 말이야.
지훈: 아, 남문 입구를 등지고 서면 ㉩ 왼쪽에 있는 벤치 맞지?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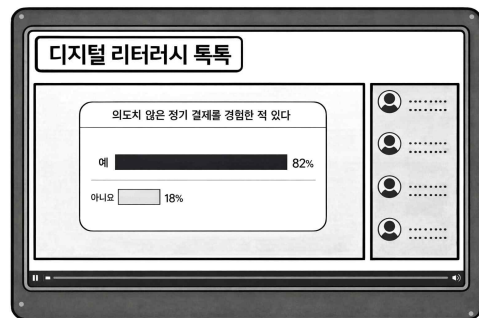
- ①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② ㉡과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③ ㉥의 이동 도착지와 ㉦이 가리키는 장소는 동일하다.
- ④ ㉣과 ㉨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
- ⑤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때를 가리킨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올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특특'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심리학자 김 박사님과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용자 환경, '다크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한 짧은 설문 결과를 볼까요?



전문가: 네, 무려 82%나 이런 경험으로 ㉠ 당황하신 적이 있군요. 이것이 바로 다크 패턴의 첫 번째 유형인 '숨은 갱신'입니다. 무료 체험 종료 후 명확한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수법이죠.

- [A]
- **모래알** 헐, 저번 달 영상 편집 앱 결제된 게 저거였구나. 앱 삭제했는데 또 결제될까요?
 - **조약돌** 모래알 님, 계정 들어가서 구독 해지 안 하면 계속 ㉡ 결제돼요!
 - **파도** 맞아요. 다행히 내년부터는 유료 전환 7일 전에 알림을 보내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대요.

전문가: 두 번째 유형은 '취소 방해'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가입은 눈에 띄게, 탈퇴는 찾기 어렵게 ㉢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전문가: 이 밖에도 팝업을 닫을 때 '혜택 포기하기'처럼 부담을 주는 문구를 반복 노출하는 '반복 간섭'도 주의해야 합니다.

- [B]
- **산호** 앗, 쇼핑몰 탈퇴하려는데 '정말 떠나시나요?'라며 우는 이모티콘 뜨는 것도 취소 방해인가요?
 - **소라** 산호 님, 그건 아까 진행자님이 말한 반복 간섭에 가깝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잖아요.
 - **갈매기** 전 결제할 때 '이 카드로 다음에도 결제'가 아예 체크되어 있어서 당황했어요.

전문가: 시청자분들이 예리하시네요. 방금 갈매기 님이 말씀하신 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특정 옵션을 수락하게 만드는 '사전 선택'이라는 또 다른 다크 패턴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 방송의 세부 내용은 하단 타임라인을 클릭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우리 지갑을 노리는 투명한 닷, '다크 패턴' 작성자: 2학년 3반 박성현
 디지털 리터러시 특목 영상 클립 링크 첨부파일: [다크패턴_체크리스트.pdf]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그동안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이 '다크 패턴'이라는 교묘한 상술 때문임을 알았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숨은 갱신'이다. 영상 클립의 내용처럼, 무료 체험 후 나도 모르게 유료로 넘어가는 수법이다. 내년 법 개정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무료 체험 만료일을 캘린더에 ㉠ 적어두어야 한다. 둘째, '취소 방해'와 '반복 간섭'이다. 나는 예전에 어떤 앱을 지우려다, 회색으로 숨겨진 탈퇴 버튼을 겨우 찾아 눌렀다. 그런데 곧바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경고창이 세 번이나 연속으로 떠서 포기한 적이 있다. 두 가지 다크 패턴이 결합된 악질적인 사례였다.

결계 전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회원 가입 시 기본으로 체크된 항목이 없는지 ㉡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첨부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똑똑한 디지털 소비자가 되자!

글 제목 (댓글 수)	작성자	작성일
우리 지갑을 노리는 투명한 닷, '다크 패턴'	성현	2026.04.03.
'엔트로피'를 읽고	동민	2026.03.13.
현장 체험 학습 후기	하늘	2026.03.10.

댓글:

- 동민:** 영상 보니까 확 와닿네. 시각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나도 저런 앱은 바로 삭제해야지.
- 지수:** 체크리스트 유용하네. 방송에서 언급된 '사전 선택' 조심하라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거지?
- 하늘:** 동민아, 아까 방송 보니까 앱 삭제만 해선 안 되고, 설정에 들어가서 직접 구독 해지를 해야 한대!

4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는 실시간 대화창으로 시청자 반응을 드러내고, (나)는 댓글 창으로 본문에 대한 반응과 보완 정보가 공유되게 하고 있다.
- (가)는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고, (나)는 하이퍼링크와 첨부 파일로 정보 확인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가)는 대화창에 제시된 시청자의 경험을 계기로 특정 다크 패턴을 설명하고, (나)는 댓글을 통해 본문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가)는 설문 결과를 시각화하여 수용자의 경험 비율을 보여 주고, (나)는 게시글의 수정 이력을 표시하여 정보가 갱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가)는 분할된 화면에 시각 자료와 대화창을 나란히 배치하고, (나)는 게시판 목록을 제시하여 다른 게시물의 이동을 돕고 있다.

41. [A], [B]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의 '조약돌'은 '모래알'이 취한 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안내하고 있다.
- [A]의 '파도'는 앞선 대화 내용과 관련된 향후의 제도적 변화를 덧붙이며 정보를 확장하고 있다.
- [B]의 '산호'는 전문가가 설명한 개념을 자신이 겪은 상황에 적용하여 이것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 [B]의 '소리'는 '산호'가 겪은 상황이 앞서 방송에서 언급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B]의 '갈매기'는 자신이 경험한 다크 패턴을 언급하며 그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42. <보기>는 (가)와 (나)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이 수집한 자료와 기획안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집 자료]

앗! 정말 떠나시나요?

지금 탈퇴하시면 10,000원 할인 쿠폰이 즉시 소멸됩니다.ㅠㅠ

자료 1 자료 2

[카드 뉴스 기획안]

- 카드 1: 다크 패턴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
- 카드 2: '숨은 갱신'의 개념과 대처 방안 안내하기
- 카드 3: '취소 방해'와 '반복 간섭'이 결합된 사례 보여 주기
- 카드 4: '사전 선택'에 대한 주의 당부하기
- 카드 5: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실천 방안 강조하기

- 카드 1을 작성할 때, (가)의 방송 화면에 제시된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해야겠군.
- 카드 2를 작성할 때, (나)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캘린더 기록을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필수적인 대처 방안으로 안내해야겠군.
- 카드 3을 작성할 때, (나)의 글쓴이가 겪은 상황과 부합하는 자료 1을 시각 자료로 배치해야겠군.
- 카드 4를 작성할 때, (나)의 댓글에서 '지수'가 언급한 내용을 환기하며, (가)의 대화창에서 언급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2를 예시로 넣어야겠군.
- 카드 5를 작성할 때, (나)의 댓글에서 '하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앱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계정 설정에서 직접 구독 해지를 해야 함을 당부하며 마무리해야겠군.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명사에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태로, 외부 요인에 의해 화자의 감정이 유발되었음을 나타낸다.
- ② ㉡: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는 조사와 결합되어, 결제라는 사태를 유발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 보조 동사 '-어 두다'가 결합되어, 앞말의 행동이 끝난 후 그 결과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④ ㉣: 연결 어미 '-어야'가 사용되어, 뒤 절의 사태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 절의 사태가 양보의 조건임을 나타낸다.
- ⑤ ㉤: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어, 수식받는 체언 '습관'이 관형사절의 의미상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44~45] (가)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학생회 누리 소통망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현: 다음 주 환경의 날을 맞아, 학생회 SNS에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올리자. 실천 방안으로는 '스팸 메일 비우기'와 '영상 해상도 낮추기'를 제안하면 어떨까?

수현: 좋은 생각이야. 그런 사소한 행동으로도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된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 그 점을 문제 상황으로 먼저 짚어 주자.

지현: 그럼 경각심을 주게 캠페인 글에 친구들 계정을 태그해서 직접 지목하는 건 어때?

수현: 그건 지목받은 친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신 본문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원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게시물도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하자.

지현: 아, 지현이 말대로 해시태그가 낮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탄소 계산기' 사이트 주소도 공유하면 좋겠어.

수현: 성현아, 누리 소통망 게시물 본문에는 인터넷 주소를 적어도 클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는 우리 학생회 계정의 프로필 링크에 걸어 두고, 본문에서 거기로 안내하자.

지현: 두 사람 아이디어 모두 완벽해. 마지막 이미지에선 투표 기능을 넣어서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고 마무리하자.

(나)

블로그 | 이 블로그에서 검색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도전에 동참해요!

공개 유형: 전체 공개 | 게시 일시: 2026.03.25.19:14

당신의 스마트폰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다?

예

당연하죠!

1. 스팸 메일 비우기

2. 영상 해상도 낮추기

도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학생회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내 디지털 탄소 배출량이 궁금하다면? 학생회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 직접 계산해 보세요!

#디지털탄소다이어트 #OOO 환경챌린지

공감 56 | 댓글 5

4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목에 청유형 표현과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게시물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본문 텍스트의 흐름 속에 해시태그를 삽입하여, 수용자가 글을 읽는 도중에 관련 게시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투표란의 선택지를 상반된 입장으로 구성하여, 화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 ④ 본문 텍스트 자체에 외부 사이트 연결 하이퍼링크를 부여하여, 탄소 배출량 확인을 위한 접속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문제 상황을 환기하는 시각 자료에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45.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현'이 언급한 탄소 배출의 원인을 수용자가 환기할 수 있도록, ㉠에 의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 ② '수현'이 지적한 문제 상황과 '지현'이 제안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에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 ③ '지현'의 제안을 반영하여, ㉢에 캠페인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 기능을 배치하여 수용자가 게시물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했다.
- ④ '성현'과 '수현'의 논의를 반영하여, 수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를 통해 수용자 간에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 접속 경로를 안내했다.
- ⑤ '성현'의 제안에 대한 '지현'의 우려를 반영하여, 본문 텍스트에는 특정 인물을 호출하는 방식 대신 ㉤를 삽입하여 캠페인의 확산을 도모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